

May 29, 2019

Global

GM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는 이것의 과학적 배경의 이해에 기초해

로체스터 대학(University of Rochester), 암스테르담 대학(University of Amsterdam), 카디프 대학(Cardiff University)의 심리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은 "소비자들이 GM식품의 과학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섭취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했다. 환경심리학 저널(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에 발표된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 답은 "그렇다" 라고 한다.

연구진들은 GM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조사하여 GM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식이 가장 큰 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찾았다. 실제로 GM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교육 성취도, 연령 및 성별 등 과 같은 다른 요인들보다 19배 이상 높았다. 연구진들은 또한 GM식품에 대한 구체적 지식은 개인의 일반적인 과학 지식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번 연구는 미국에서 실시된 후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반복해서 실시하였다.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GM기술의 이면의 기초 과학을 배운 231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주간의 장기간 비교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진들은 대학생들이 GM기술을 습득한 후, GM식품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GM식품을 섭취하려는 의향이 높았고, GM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낮아졌음을 발견했다.

뉴스 기사를 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niversity of Rochester
 연구 기사를 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lobal

버거 킹의 새로운 식물 기반 버거가 스웨덴에서 출시, 아시아에서도 곧 선보일 예정

버거 킹(Burger King)은 현재 스웨덴에서 새로운 식물 기반 햄버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새로운 버거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신생기업인 Impossible Foods가 선보인 인기있는 식물 기반 선흥색 고기로 만든 Impossible Whopper의 버전이다. 4월 초, Impossible Whopper는 미국 세인트루이스(St. Louis)에서 출시되었으며 머지 않아 전세계의 모든 버거킹 매장에서 이용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식물 기반 햄버거의 특별한 재료로 헴(heme)이라 불리는 선흥빛이 도는 핏기가 있으며 고기 맛내는 것으로 만든다. Impossible Food의 헴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유기체가 아니라 GM 효소로 생산된다.

Impossible Foods는 아시아가 전세계 육류 소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시아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he Spoon](#)

Americas

브라질의 바이오안전성 기술위원회, HB4 대두에 대한 상업화 승인

브라질의 바이오안전성 기술위원회(Brazil's National Technical Commission of Biosafety, CTNBio)는 브라질 옥수수 민간기업인 TMG Tropical Melhoramento & Genética and Verdeca에 HB4®내건성 유전자변형 대두에 대한 상업화 승인을 내렸다. 이 승인으로 브라질에서 HB4 대두 품종의 재배 및 수확을 허용한다.

HB4 형질 이외에도, 제초제 내성 형질을 가진 후대교배종도 승인되었다. 최종 승인 문서가 작성되기 전, CTNBio's의 승인은 30일 간의 공개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브라질에서의 HB4 형질의 상업적 출시는 현재 진행중인 주요 대두 곡물 수입국과 등록 절차에 의한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

HB4 형질은 이미 아르헨티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되었다. 현재 미국 농무부 뿐만 아니라 중국, 파라과이, 볼리비아 및 우루과이 등에서도 제출 서류를 검토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TMG\(포르투갈어\)](#)의 뉴스 보도를 참조하시거나 다음 기사 [AgroPages](#)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search

EU 14개국, 식물에서의 유전자편집에 대한 통합적 접근 촉구

네덜란드와 에스토니아는 새로운 육종 기술(NPBTs)에 관한 EU의 법률 개정을 차기 유럽위원회(Europe Commission)에 촉구하기 위해 EU의 14개 회원국을 이끌고 있다.

회원국은 유전자편집에 관한 EU의 공통된 접근법을 요청했으며, 차기 유럽위원회의 GMO 규칙 개정안을 실무 프로그램에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그들의 의견은, 돌연변이 유발에 의해 얻어진 유기체는 GMO로 간주되며, 따라서 EU의 GMO 지침에 명시된 안전성 및 마케팅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작년 판결 이후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대표단은 비록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돌연변이 유발 및 기타 NPBTs의 법적 상태에 대해 보다 법적인 명확성을 제공했지만, 그것은 또한 유럽입법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다른 실질적인 문제들도 불러 일으켰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또한 돌연변이 유발에 의해 얻어진 유기체가 수년 동안 경작에 사용되어 왔고 오랫동안의 안전성 추적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EU 장관들에게 상기시켰다.

네덜란드와 에스토니아 외에도, NPBT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EU 국가는 벨기에, 키프로스,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uractiv](#)

Document Reminders

포켓 K 57: 토양 건강에 GM작물이 미치는 영향

건강한 토양 없이는 건강한 농업 생산 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다. 탄소 격리(carbon sequestration)에 기여하는 다양한 유기체의 서식처가 되는 것 외에도, 토양은 식품 생산뿐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은 토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에 기여된다. 탄소 격리는 대기 중의 탄소가 토양에 흡수되고 저장될 때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은 토양에 더 많은 탄소가 저장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덜 존재하게 되고 이는 기후변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오염된 토양을 복구하고 토양 보존 관행을 채택하는 것은 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중요하다.

제초제내성 작물과 같은 생명공학제품을 통해, 보존 관행은 농민의 혜택 뿐만 아니라 토양 건강 보존에도 활용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